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존 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발명인 가족과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마흔세번째 '발명의 날' 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수상하신 영예로운 발명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
순간에도 신기술 개발을 위해 땀흘리고 계실 전국의 모든 발명
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발명인 모두의 창
의와 열정이 있었기
에 오늘날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를 자
랑하는 선진 발명
한국이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명은 인류의 진화와 역사를 이끌어 온 가장 큰 원동력입니
다. 증기기관차의 발명이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었고, 전구의
발명은 인간의 생활주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은 국
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동안 우리나라 하나가 CDMA
방식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퀄컴사에 지불한 로열티가 무려
3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얼
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 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발명인들이 얼
마나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할 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 지식
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
른 무한경쟁과 함께 지
식과 혁신 그 자체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
상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
또한, 진지한 마음으
로, 스스로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변화주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며, 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창조적 실용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발명인들께서 바로 이런 변화와 발전의 주창자로서 우리나라를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산업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에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부 또한 우리 지식재산권 제도가 세계 어느나라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선진적 발명지원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특허가족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37만 7천여 건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출원되어, 세계 4위의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심사·심판업무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을 얻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어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4대 특허강국으로서 공고한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는 우리 특허가족 여러분과 특허청 직원 모두의 사심없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허기술수지 적자는 세계 5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아직 질적 도약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심사·심판업무의 처리속도만이 아니라 그 품질면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발명인들이 힘들여 창조한 지식재산이 정당한 권리로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 창의성이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브랜드·디자인경영 등 지식에 토대를 둔 경영을 우리 기업 전반에 확산시키겠으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R&D 투자를 효율화하여 기초·원천특허 창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기술거래 시스템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발명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발명인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혁신이 새로운 발명을 불러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제2의 세종대왕, 제2의 장영실과 같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우리 민족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번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도 보잘 것 없지만,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와 측우기를 발명하였으며,

창의력과 높은 교육열, 그리고 불굴의 도전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발명인 여러분이야말로 이러한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력입니다.

발명인 여러분 한분 한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우리 나라를 선진일류국가로 가꾸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명인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